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창립 학술대회

용산 전쟁기념관 강당에서 성황 이뤄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의 창립기념 학술발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오전에 있은 이사회에서 유한성 수석부회장이 현황설명을 하고 있다

단법인 ‘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가 2009년 11월 그 발기인총회를 열고 1년여의 노력 끝에 2010년 9월 말경 정부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공식 탄생을 한 바, 그 첫번째 사업으로서의 설립기념 학술대회가 2010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2층 강의실에서 ‘ 임진란의 역사적 재조명 ’이라는 표제로 열려 상당한 성황을 이루고, 그 발표와 토론 내용도 충실하다는 평을 받았다. 120석 정도의 강당에 200여 청중이 들어와 통로에 보조의자를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랐고,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는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중에 자리를 떠 드나들거나 하품을 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박권흠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선양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미리 같은 장소에 임원과 관계자가 모여 법인 설립 후의 두 번째이자 2010년의 송년 이사회를 열었다. 안건은 ‘ 2011년도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단체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총회 소집에 관한 건 ’ 등이었다. 법인 창립 2차년도인 명년의 사업계획을 보면 1차 국내 학술대회를 봄 3,4월에 1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열고, 2차 또한 국내 학술대회로서 가을 9,10월에 열며 1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임진란 지도자 관련 문화유산의 발굴조사 사업을 벌인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법인이 지금 초창기로서 가까스로 중앙정부의 설립인가만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로, 사무실과 상근직원이 미확보이면서 몇몇 관계자가 자원봉사로 이같은 기초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난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았다. 특히 재정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성씨문중에서 임란 호국인물인 그 선대를 현양하기 위한 재정 등 여건 조성에 얼마나 열의가 있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였다.

본행사는 오후 1시 30분에 개회식이 있고 2시부터 4시까지 주제 발표를 하는 것으로, 2부행사는 4시부터 1시간 정도 종합토론을 하는 것으로 짜였고, 그 주제 발표 내용은 1주제가 전쟁기념관 박재광 교육팀장의 ‘ 임진란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 ’, 2주제가 강원대 손승철孫承喆 교수의 ‘ 조선시대 행실도行實圖에 나타난 일본의 표상 ’, 3주제가 명지대 한명기韓明基 교수의 ‘ 임진란과 조중朝中 관계 ’였다. 고려대 명예교수 유한성柳漢晟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개회가 되어 먼저 내빈이 소개되어, 이종남李種南 전감사원장, 최열 곤崔烈坤 전서울시교육감, 이종찬李鍾贊 전국정원장, 심우영沈宇永 전총무처장관, 정태수鄭泰秀 전대진대총장, 박장규朴章圭 전쟁기념관장 등 각계 원로가 답례를 하고, 안동권씨 문중인으로는 앞선 이사회의에서 선양회의 고문으로 위촉된 권영익權寧翼 전충장공기념사업회장과 권오갑權五甲 전과학기술부차관이 소개되었다.

개회사에서 박권흠朴權欽 선양회장은 “ 우리가 무역규모 세계 7위의 경제대국에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한참 제치고 2강에 오른 것 등이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 ”라며, 이같은 국민적 정신력의 근저에 임진란을 극복하면서 축적한 것과 같은 지향의지의 유전인자가 작용함이 있다는 요지를 강조하였다. 재향군인회장 박세환朴世煥 예비역 대장은 예정보다 훨씬 길어진 축사에서 본인이 임란 무훈 무의공武毅公 박의장朴毅長 장군의 후손임을 밝히고, 현재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긴박한 국제정세하에 분단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철없는 이념 갈등으로 영일이 없는 데에 깊은 우려와 탄식을 발하며, 850만 회원의 재향군인회가 앞으로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가 하는 일을 적극 도울 것을 약속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개회사와 축사가 예정보다 상당히 길어져 이를 마치고는 잠시 휴식하고 주제 발표에 들어갔다. 박재광 교육팀장은 1주제 ‘ 임진란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 ’를 ‘ 머리말 · 임진왜란 연구의 시대별 경향과 특징 ? 임진왜란 연구의 향후 과제 ’로 나누고, 임진왜란 연구의 시대별 경향과 특징을 다시 ‘ 일제시대 · 해방후 ~ 60년대 · 1970년대 · 1980 ~ 90년대 · 2000년대 이후 ’로 세분해 분석 설명한 다음 끝에서 “ 전쟁의 종결 처리 문제, 전쟁 기간중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그에 따른 민중의 대응책,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중의 생활상과 반전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노력을 토대로 보다 보편적인 임진왜란의 역사상이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각국의 평화공존을 위한 공동의 역사인식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하였다.

2주제 ‘ 조선시대 행실도에 나타난 일본의 표상 ’에서 손승철 교수는 “ 이 글은 조선인이 일본 또는 일본인, 나아가 일본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전승되었을까를 연구한 것이다. 조선시대 조선인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4세기 후반 왜구倭寇의 약탈과 16세기 후반의 임진왜란이었다. 왜구의 약탈과 임진왜란은 조선인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으며 이것은 곧바로 조선인의 부정적인 일본인식으로 고착되었다 ”는 압축문의 허두로 시작하여 ‘ 서론 · 행실도의 편찬과 내용 · 행실도의 특징 · 결론 ’으로 나누고, 세부에 들어가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 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 동국신속삼강해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를 분석하고 선별하여 왜구와 임란에 피해한 충신 · 효자 · 열녀를 추출해 설명하고 나서, 결론의 말미에 “ 조선인에게는 조선의 전기와 후기가 별로 다르지 않게, 일본은 여전히 조선을 약탈하고 침략했다. 일본은 늘 가해자이고 조선은 피해자였으며 일본은 늘 경계의 대상, 원한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기억과 인식은 19세기에 접어들어 조선에 대한 외세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일본도 왜양일체倭洋一體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20세기의 식민시대를 경험한 또다른 피해인식은 현재의 한국인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 500년의 한일 관계에는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 약탈과 통교, 침략과 전쟁, 교류와 협력 등 과거의 다양한 ‘ 역사경험을 공유 하지 못하는 한 한국과 일본이 ‘ 공생의 시대 ’를 열어가기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고 하였다.

3주제 ‘ 임진란과 조중관계 ’에서 한명기 교수는 개구에 군사적 긴장이 첨예화하여 있는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정세를 지적하며, 명나라가 임란에 조선을 구원하면서 ‘ 항왜원조抗倭援朝 ’를 표방하고 실은 자기의 전쟁을 남의 땅 조선에 와 벌였고, 6 · 25전쟁시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 참전하며 ‘ 항미원조抗美援朝 ’라 하여 미군과 압록강에서 대치하는 것을 막고자 자기의 전쟁을 한반도에서 치른 것이 상통한다고 갈파하고, 한반도를 위요하여 일어난 청일전쟁 · 러일전쟁이 또한 일맥이 통하는 국제전의 양상임을 예시하였다. 논문은 ‘ 머리말 · 1.명군明軍의 조선 참전 배경과 그 과정 · 2.명군 지휘부의 강화 추진과 조선의 대응 · 3.정유재란 시기 명군의 재참전 · 4.명군 참전이 조선에 남긴 영향 · 5.임진왜란을 통해 명이 얻은 것 · 맺음말 ’로 나누었는데, 그 머리말에서 “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 끼여 있다. 때문에 역사상 한반도에서 일어난 격변은 한반도 자체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국에 커다란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었다. 역으로 주변국 내부나 주변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격변의 여파 또한 ‘ 끼여 있는 ’ 한반도로 곧바로 밀려왔다. 그와 관련하여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본의 오랜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 명明 정복征服 ’을 공언하면서 한반도는 곧바로 일본의 침략대상이 되었고, 한반도 방어를 통해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명군의 참전이 이루어지면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전이자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었다. 명이 대군을 동원하여 조선에 참전, 원조한 것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선은 명의 참전과 원조를 ‘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운 은혜(재조지은再造之恩) ’로 숭앙하게 되고, 명과 조선의 관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